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먼저 구할 나라와 의

성경: 마태복음 6장 28-34절

Tag: 만족, 행복, 마태복음, 신약성경, 저출산, 고령화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28-34)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양대산맥 사이에서 해법을 찾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다자녀, 절대빈곤 사회라는 양대산맥을 독재라는 기차를 타고 가족계획이라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하나의 산맥은 넘어가고, 또 다른 하나는 터널을 뚫고 헤쳐나오면서 기적같은 산업혁명, 경제대국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신 군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다.

386(현재 586)세대들은 주체사상으로 반항적으로 뭉치기 시작하면서 과거 정부의 유산을 독식해 들어갔고, 고령화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핑계를 내세워 정년연장카드를 만지작거렸다.

1980년대 중반 정년 58세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1962년생 2022년 정년)

2021년 근로자 정년 65세 연장 공약카드 만지작(민주당) 현대차노조 64세 요구.(국민연금 고갈 연장이 핑계) -청년 일자리 급감의 원인.

*청년 대학진학을 급증. 갈수록 청년들의 수도권 밀집 현상, 3D업종 기피 심각 + 고령화 사회=정년연장 =>청년 일자리 소멸.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남.

*바야흐로 대가족 제도의 장점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됨.

*양육비는 국가 책임

*젊은이들은 출산 책임

*할아버지들은 돌봄 책임

*과도한 여성주의는 비현실적이며 부도덕함.

*수년내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음.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

-자녀는 젊어서, 양육도 젊어서. (40까지는 양육에 더 힘씀. 가벼운 경제활동)

-나이 들어 돈을 벌고, 노년은 부요하게. (40~70까지 경제활동)

*과도한 여성주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함.

-교회에서는 계몽활동이 중요함.

*‘먼저 구할 나라와 의’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자신의 행복은 가치관과 직결됨.

-오직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신과 나라를 살리고 부강하게 함.

-젊어서는 사랑하고, 놀고, 가족을 이루고, 직업을 연습하고, 다양하게 경험하고, 여행 하는 것이 중요함. 이때는 생활비만 벌어도 됨.

-40이 넘어서는 돈에 대한 욕심이 늘고, 돈에 대한 소중함을 잘 깨닫는 나이가 됨. 재산, 부동산, 사업 등에 힘을 쏟아야 할 때.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 하나님은 기본적인 생활에 관련된 의식주를 쉽게 해결하게 하심.
- 자연 탐사 다큐멘타리를 보면 자연의 생물들은 모두 자신의 의식주를 다양하게 구현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음. 모두 다양하고 독특함. (남의 등지에 알을 낳는 뺨꾸기의 일생;탁란-뱀새, 산술새, 휘파람새. 뱀새는 영웅을 낳았다는 만족감에 충실함.)
- 한결같은 공통점은 모두 자기 일에 충실하다는 것.
- 오직 사람만 실존적 존재, 특히 나쁜 사람이 있다.
- 심지어 개 조차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다만 나쁜 주인만 있을 뿐이다.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실존적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관은 ~
-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라. 본향을 잃지 말라.
-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다. 불꽃처럼 타오르다 남 좋은 일 하고 소멸할 뿐. 불쏘시게 역할 인생.
-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추구하라.
- 힘이 썩은 자는 약한 자를 보살피 주어라.
-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위해 길을 닦아라.
-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아라.
- 부자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깎지 말아라.
- 정규직, 비정규직 철폐, 정년철폐. 국가는 세금만 거두라. 국가는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오직 봉사만 하라.
- 헐벗은 자는 입히고, 배고픈 자는 먹이고, 잘 곳이 없는 자는 재워

라.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잘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행복하게 살아라. 자녀들을 낳아 성경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는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라. 이것이 행복이고 만족이다.

*구원의 정의를 잊지 말라.

-사람은 모두 죄인이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정의를 믿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 받아야 한다.

-인생이 이걸로 끝이라면 허무한 인생일 뿐. 사람은 빠꾸기나 뱀새가 아니다. 인생은 천하보다 소중하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빠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생의 최대 목적은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며,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상의 만족은 세상이 없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강단영성

성경: 신명기 4장 23-31절

Tag:

23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라

25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29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위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임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4:23-31)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 1899-1981)

-20C 최고의 강해설교자.

- 청교도 신학을 계승한 마지막 청교도. 강단 영성의 대가.
- 의학 전공자. 장래가 촉망된 의사.
- 27세에 목회자가 됨. 정식 신학 교육 받지 않음.
- 영국 웨일즈 에버라본, 베들레헴 전진교회 부흥의 주역.
- 부임 당시 93명 50여명 출석 교회에서, 530명 등록, 평균 850명 출석 교회가 됨.
-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
- 1938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부임. 30년 동안 탁월한 설교가가 됨. (주중에는 영국 전 지역 순회 설교)

- 당시 시들어가는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함.
- 그러나 영적인 힘은 사라짐. 국교회의 교조주의 팽배함.
(dogmatism-생각하는 것은 참된 것, 철학적인 것. 독단주의, 교리주의, 근본주의, 맹신.)

*설교의 열매

- 죄인들의 회개
- 병든 영혼의 치유
-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
-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사.
- 진리의 빛을 바라봄.
-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결단하고, 영혼은 타오르기 시작함.

-

*로이드존스의 마지막 고별설교

-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의 흠 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분을 믿으면 그분의 완전한 의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 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엽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그의 설교;설교는 불붙은 논리. 설교자에게는 열정과 진리가 있어야 함.

-설교의 요소;진지함, 명쾌함, 감동, 뜨거움, 권위, 긴박감.

-설교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는 핵심교리가 중요하다. 사도신경과 성경말씀이 중심. (그는 성령세례, 성령의 은사, 세례, 교회정치, 천년왕국 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

-말씀과 성령의 발란스가 중요하다.

-교회의 부흥이 유일한 갈망

-십자가의 피;메시지의 중심.

-성경의 권위

-칭교도 신앙

*강단영성의 원동력

-확실한 성령체험

.성령의 내주(중생)와 성령세례;성령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의 내재를 경험할 수 있다. 성령세례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강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과 비슷함.)

-부흥이란 여러 성도들에게 동시에 경험되는 성령세례다.

성령세례가, 중생할 때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부인하는 것. 또한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중생은 무의식적이며 비체험적임. 그러나 성령세례는 근본적으로 체험적이다.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3:8)

중생

성령세례

능력세례;능력의 부어주심;개인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은사;어떤 것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기름부음도 있음

-기름부음의 특징

.영구적 소유물이 아님.

.주어진 요소에 의존함.

.설교자의 연약함이 기름부음을 방해하지 않는다.

.필요성;설교에는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확증함.

.준비가 부실하고 부적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름부음이 넘쳐흐를 수 있다.

.기름부음은 설교자의 심령을 불타게 한다.

.노련하고 경건한 설교자라도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름부음이 필요하다.

.기름부음에는 회중이 포함된다.

.기름부음은 설교자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다.

.성령을 사모할 때 기름부음이 이루어진다.

제시했다. 그중 에드워즈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나에게 그것은 비상한 일이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며,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을 보았다. 그렇게도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 너머에서도 위대하게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찬란한 모습으로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탁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내가 판단하건데 이 일은 한 시간 가량 지속되었다. 나는 그 시간 내내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며 큰 소리로 울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 만 나는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티끌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해서 살며, 그분을 섬기고 따르며, 신성한 하늘의 순결함으로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²⁵⁾

1925년의 경험; 부활절, 기쁨과 영광의 충만.

1925년 부활절, 빈센트와 같이 리젠시 가의 자기 집에서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를 연구하는 중에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방에 혼자 있었다. 그는 그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르렀다. 그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오직 그의 죽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진리는 그를 놀라게 했다.²⁷⁾ ...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²⁸⁾

1949년의 경험

- 그는 주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비치었다. 천국에 근접하게 되었고, 여러날동안 황홀경과 기쁨의 상태가 되었다.

* 죄 문제를 인식함

- 인간의 실존을 심각하게 인식함.
-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
-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에서 해방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 그렇지 아니하면 도덕적인 빈궁과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 소망이 없어진다.
- 욕심과 교만, 부정과 나태, 이기심과 시기심은 본성이며 실존.
- 네 모든 생각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복종하라.
-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 긴박하고 끈질긴 기도생활

* 성경읽기와 독서